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 복원 시작

광주시·문체부 추진단 현판식
협력·시설과 등 24명으로 구성
속도감 있게 추진 2022년 완료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 복원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복원공사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정영일·김후식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의 관계자를 비롯한 시·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옛 전남도청 복원 업무를 팀제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옛 전남도청을 80년 당시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수집·조사, 내·외부 복원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관계부처, 복원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달 27일 추진단 신설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단장 아래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및 전시콘텐츠팀을 두기로 했다. 인력 규모도 24명으로 확대했다.

추진단은 이날 현판식을 계기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 전시콘텐츠 구성 및 복원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는 2022년까지 옛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이 10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최경환·송갑석 국회의원, 정영일·김후식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도청지킴이 어머니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임정욱기자 joi6005@srb.co.kr

전남도청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판식을 계기로 복원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해 5·18 가치가 공유되고 옛 전남도청이 소통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상생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차디찬 바닥에서 정의와 역사를 지켜내신 오월어머니들과 복원대책위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옛 전남도청이 오롯이 오월정신을 지켜내고 정의로운 역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심장부가 되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복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복원대책위가 농성 시작 만 3년째인 지난 6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항의농성을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복원대책위는 복원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기대했다. 광주시와 문체부, 복원대책위로 구성된 복원협의회는 앞으로 복원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복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끝나지 않은 '조국 대선' ... 여야, '2라운드' 격돌

민주당 '보수 야당 주장, 정치공세'
자유한국당 '반문연대' 구성·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의 대립 양상이 임명 전 보다 한층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조국 대선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과제인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구성을 제안하고 특검과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등 대야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0일 보수야당의 조 장관 해임건의

안과 국정조사, 특검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미리 차단해 나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뭉개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반문 연대' 구성을 제안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셔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결국 조국이라는 폭탄을 꺼안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한국의) 국민연대 구성 제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은 반대하지만, 보수 야당과의 공조는 선을 긋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정조사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유상엽 대안정치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與,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 설치 검토

대입제도 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입시제도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조 장관 딸의 특혜 입학 의혹 등으로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당내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아직 특위 설치가 확정된 건 아

니고 이 대표가 정책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아직 누가 참여할지 등 구체적으로 참여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와도 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설치가 확정되면 당내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9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보건복지부 정책수행 '으뜸'...법무부 '최하위'

뉴스, 18개 부처 첫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정책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정책수행 지지를 받았다. 이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법개혁이라는 국정 핵심 과제 추진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보이고 있는 법무부는 국민들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뉴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지난 5~7월 선행 조사 결과도 포함돼 총 4개월 간의 추이를 보여 준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는 18개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인의 평가를 반영했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개로 분류했다. 각 행정부별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46.5점을 기록, 18개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최하위 부처는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34.7점으로 '잘못하는 편'이란 평가를 받았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총 1만8천55명(부처별 1천1명~1천12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부처별 3.9%에서 5.5%를 나타냈다. 뉴스

조국 임명, 잘못했다 50% vs 잘했다 47%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팽팽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9.6% (매우 잘못했다 43.2%, 잘못한 편 6.4%),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6.6% (매우 잘했다 32.6%, 잘한 편 14.0%)로, 차이는 오차범위(±4.4%p) 내인 3.0%p였다. '모름/무응답'은 3.8%다.

세부적으로 부정평가는 한국당 지지층에서

90%대 중반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다수였고,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 60대 이상과 50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에서도 절반 이상이였다.

긍정평가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70% 전후나 80%대 중반의 대다수였고, 20대와 30대, 40대, 호남과 충청권, 서울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7천259명 중 501명이 응답해 6.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쿨러만 가도 삽니다"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최고가 매입

당일어전/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구입 가능

할부상담 전액 할부 가능

차량구입 + 이전비 + 보험료 + 여운돈

(주)영서모터스

문의 민 식

H. 010-4609-8976

전남권 출장 가능
광주광역시당 표창대 수여 2019년

28년 연속 방문자·선호도 1위

광주일자리 사랑방 JOB

광주 300대기업 채용관

평균 연봉, 매출 등 기업정보 완벽수록

요식 브랜드 전문관

프랜차이즈 정보부터 출퇴근거리 계산까지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어문 운반 가능 062)522-2424 전남 전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당일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실패스시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사랑방 JOB